

통권169호

발행일 2005. 11. 11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2005회원 역사기행

- 지리산·구례·남원·곡성 전적지를 찾아가다 -



▲노고단입구 성삼재 전망대에서

• 목 • 자 • 양심수 후원회 전국모임 공동결의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박제원 선생님을 뵙고 윤보현 • 4 / 감옥에서 온 편지 박승주 • 7 / 부산 APEC회의 편집 부 • 8 / 일립니다 • 11 / 2차 송환권오현 • 12 / 회원마당 • 평양 방문기 김명숙 • 15 / 회원마당 • 역사기행 이용준 • 19 / 회원마당 • 신행기 이창희 • 21 / 시시만평 • 22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4 / 이런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3 / 희비를 내주신 분들 • 34

※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151 -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 −141

전화: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va.ngsimsu.or.kr 이-메일: vangsimsu@ha.nmail.net

국가보안법폐지·양심수 전원석방·정치수배해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보안관찰법 폐지

불의와 모순이 있는 곳에 인류 양심의 저항이 있었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사회변혁을 위한 민중 투쟁이 있었다. 양심수는 이러한 불의와 모순에 맞선 사회정의 구현과정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이 땅에서 양심수가 있게 된 이유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외세와 분단에 맞서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맞서 사회진보와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과정에서 양심수가 무더기로 구속되곤했다. 그래서 많은 통일애국세력과 청년학생들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양심적 지식인과 문학예술인들이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치욕적인 미 군정시대를 비롯하여 1인1 당독재, 군부독재, 문민독재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양심수는 구속되었으며 상당수는 사법살인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심수가 있었기에 양심수후원회가 있게 되었다. 양심수후원회는 그 자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양심수의 주장과 활동을 지지, 연대하며 석방과 후원 활동을 임무로 한다. 때문에 양심수후원회는 영속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 임무를 빠른 시간에마치고 해산하는 것이 승리이고 영광인 것이다.

양심수후원회는 처음부터 모든 양심수를 후원대상

으로 하지 못했다. 아니 장기구금양심수의 석방과 후 원을 목표로 발족했었다. 그리고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임무의 실마리를 찾았다.

길게는 40년이 넘도록 모진 고문과 탄압에서도 통일조국에 대한 한결같은 염원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었기에 서슴없이 양심수로 규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석방운동과 송환운동에서 논리적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89년 양심수후원회 발족 당시 270여명 장기구금 양심수를 10년만에 전원석방할 수 있었고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신념의 고향, 그리운 가족이 있는 북녘으로송환되게 되었다.

최근 부당하게 갇혀있는 양심수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한다면 눈에 띄게 준 것은 사실이다. 절새수에서 뿐 아니라 양심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극소수로 줄었고 생존권, 주거권과 관련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가 절대 다수로 되고 있다. 또한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후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반전평화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다 구속된 양심수가 1000여명이 넘고 있다. 양심수후원회는 시대상황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장기구금 양심수에서부터 단기 양심수,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까지 그 후원 대상을 넓혀 왔었다.

오늘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양심수후원회

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은 2005년 회원 역사기행을 함께 하면서 아직도 끝날 수 없는 양심수후원회의 임무를 다시 확인하며 공동 과제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수십년 감 옥에 갇혀있던 비전향장기수가 그러하듯이 오늘 역 사기행지로 된 지리산 또한 외세와 분단이 빚은 아픈 상처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아팠던 상처의 배경을 냉철하게 다시 밝 혀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15조국광복을 맞은 우리민족은 자주독립 통일정부를 세워야할 가장 시 급한 민족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 곡에서 일제 통치기구를 없애고 행정, 치안 등 자치기 구를 만들고 자주정부수립의 토대를 닦고 있었다. 그 러나 새로운 외세는 해방된 땅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점령군으로 군림하는가 하면 모든 자치기구를 해산 시키고 미 군정만이 유일한 통치기구라며 군정을 실 시했다. 남과 북사이 우리민족끼리는 갈라져 겨루어 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러한 외세의 점령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외세의 간 섭은 우리 민족의 존엄성과 자주성 그리고 이익에 반 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우리민족이 적대할 대상은 동 족이 아니라 외세였고 그것은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은 잊어버린 과거를 회상하는 전적지가 아니라 더 이상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되지 않게 다짐할 교훈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전 쟁책동을 일삼고 있는 강점 60년의 미군을 철거시키는 다짐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6.15공동선언시대를 살고 있다. 공동

선언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세강점 말고 일제의 조선 민중의 탄압 수단 잔재이며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통일 반인권 악법은 반드시 폐지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양심수후원회의 고유임무이면서 당면과제로 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국가보인법 보안관찰법등 반통일 반인권약법을 폐지할 것을 결의한다.
- 앙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올해안에 이루어지도록노력할 것을 걸의한다.
- 범민련, 한총련, 한청, 범청학련 등 이적 규정 철회할것을 결의한다.

2005년 11월 5일

양 심 수 후 원 회 전 국 모 임 광주 · 전남 양심수후원회 대구 · 경북 양심수후원회 대전 · 충남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박제원 선생님을 뵙고

유보현 |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며칠 전 우리는 너무나 고대 했던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강제 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한 2차 송환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이었다. 장제 전향 장기수 선 생님들은 지난 2000년 9월 2 일,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의 1차 송환 때 그렇게 가시고 싶 었지만, 고문과 폭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쓰여졌던 사상 전 향서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 루지 못하셨던 분들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2차 송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고 정순택 선생님의 유해가 북녘으로 송환되고 2 차 송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 간 후, 우리 사무실로도 반가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바로 우리가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장기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다. 박제원 선생님.

1969년 5월, 북녘에 부인과 세 딸을 남겨두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후 그해 9월에 체포되셨다.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89년에 출소할 때까지 꼬박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분이셨다.

1950년, 전쟁 당시 북으로 가게 돼...

1930년 1월 20일,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은 1946년부터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야간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 그러던 중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함께 공부하던 친구의 고향인 개성으로 가시게 되었다.

개성에서 며칠 머물다 인민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후퇴를 하셨다가 1950년 12월에는 중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젊은 사람들만 모아 인민군 기술학교에서 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선생님도 그 기술학교에서 생활하시며 3년 정도 중국에서 생활하셨다.

북에서 결혼, 부인과 세 딸 있어...



1953년 북으로 다시 돌아오 신 선생님은 인민군 기계화부 대에 계시다가 1956년 제대 후 황해도의 제철소에서 근무 하셨다.

그 곳에서 부인인 김명숙 씨를 만나 1959년 결혼을 하셨고 박경자, 박경애, 박경여 등세 명의 딸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다.

그 후 황해도 인민위원회에 서 활동하셨고, 1964년부터는 중앙당 소속으로 활동하셨다 고 한다.

중앙당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집에 자주 오시지 못했다 던 선생님은 딸들이 자신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할 거 라시며 안타까워하셨다.

1969년, 동료 송병록과 함께 남파...

선생님은 1969년 5월, 송병록 선생님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셨다

함께 내려오신 송병록 선생님은 고향이 김천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사람의 후배였다고 기억하 고 계셨다.

남쪽에 내려와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의 신고로 검거되 신 두 분은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송병록 선생님은 그대로 사형, 박제원 선생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병록 선생님의 사형 집행은 아이러니하게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겉으로는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장기수들을 사형시켜버리는 정권, 선생님은

아직도 송병록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다.

교도소 생활, 눈뜬 장님으로 20년...

대구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여 대전으로 가셨다가 다시 대구로 오신 후, 대구에서 출소하셨다.

처음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고는 2년 정도 다리에는 족 쇄를, 팔에는 수정(수갑처럼 손을 묶는 것)을 차고 있었다 고 한다. 거기에 교도소에서 나오는 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책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 사상전향서를 쓴 후에서야 겨우 소설책 정도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독방에서 생활하다보니 생각도 둔해지고, 말도 더듬게 되었다시며 눈뜬 장님 신세였다고한탄하셨다.

선생님이 전향서를 쓰게 된 것도 전향전담반에 의한 고 문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였고 깨어보니 병원이었다 고 한다. 그리고 본인이 쓰지도 않은 전향서에는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출소 후에도 여전했던 감옥살이...

1989년, 그 모진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소하신 후의 생활 또한 좀 더 넓은 감옥으로 옮긴 것 뿐이었다.

바로 보안관찰 대상자였기에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직장을 찾아 여러 곳으로 떠돌아 다닌 것도 셀 수 없었다. 출소 후 고향인 영천에 잠시 머물다가 직장을 찾아 다시 대구로 오신 선생님은 막일은 말할 것도 없고, 과수원일, 수위 등 살기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하지만 간첩으로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을 직장에서 그대로 두지 않았다. 거기에 자꾸 찾아오는 형사들 때문 에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직장을 옮겨 다니니까 이사도 자주 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경찰은 직장도 자주 옮기고 이사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계속해서 연기했다고 한다. 선생님의 기억으로도 5~6번 정도는 더 연기되었다고 한다.

결국 올해 8월 보안관찰이 끝날 때까지 출소 후에도 15 년 넘게 감옥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오셨던 것이다.

월북자 가족에서, 빨갱이 가족으로...

선생님의 고향은 영천으로, 출소하셨을 때 고향에는 형 제들과 조카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장기수 가족의 삶 의 질곡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밤을 세울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의 가족은 남파되기 전까지는 월북자의 가족으로, 남파된 후부터는 빨갱이의 가족으로,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지금은 형제들은 다 죽고, 조카들이 7~8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조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연락도 자주 안하신단다. 그 동안 삼촌 때문에 겪었던 숱한 고생을 생각하면 조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신다.부모님 제사에 갔다와도 누굴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다 보고해야했기에 제사에도 잘 가지 못했다.

특히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 두 가지 있었다. 그 하나는 영천에서 농사를 짓던 조카 하나가 본인 때문 에 경찰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한 일이었다. 자살하기 두 달 전, 교도소로 접견을 왔었다고 한다. 마지막 접견이라는 말에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저세상으로 간 것이었다.

마음이 좀 강했으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농사도 못 짓게되자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마지막 접견 때 500원짜리 빵을 넣어준 것이 그 조카 와의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몇 해 전 조카의 아들이 병 으로 죽었는데, 보안관찰 신고를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삼촌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안온 것이 조카로서는 얼마나 야속해할까?' 하고 선생님은 생각하셨다.

송환이 된다면...

지난 2000년 1차 송환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미리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셨다. 그 당시에도 보안관찰대상자였기에 마음 놓고 누굴 만날 수 없었고, 1차 송환후 2차 송환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지내셔서 그동안도 후원회로 연락을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의현재 유일한 소망은 북녘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노후를보내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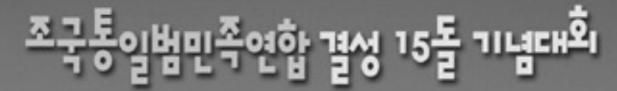
그리고 5~6년 전부터 함께 사시는 분이 계신데, 송환이 된다면 이분이 혼자 사실 수 있게 해 주고 가야한다는 걱정도 있으셨다. 현재 선생님은 아파트 수위 일을 하시며 한 달에 6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두 분이서 살고 계신다. 그리고 가기 전에 조카들을 만나 지금까지 삼촌이 조카들에게 잘 하지 못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조카들은 삼촌이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남쪽에서의 삶을 정리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선생님은 꼭 송환되길 바라고 계셨다.

"요즘 꿈을 꾸면, 계속 교도소 꿈만 꾼다. 맞던 꿈, 철 사 줄에 묶여있던 꿈, 재판받던 꿈... 이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남쪽에서 20년, 북쪽에서 20년, 교도소에서 20년.' 선생님의 삶의 분기를 나눠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감옥에서의 그 모진 세월로 허리와 다리도 불편하 고, 당뇨에 고혈압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으셨다. 선생님 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진 후 다시 돌아서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불편한 다리로 조금씩 절뚝거리시면서 걸어가시는 선생님의 뒷 모습에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엿볼 수 있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모진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늦었지만 선생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시:2005년 12월 4일 일요일 오후3시 / 장소:서울

시대가 좋을수록 할 일은 많습니다.

7천만 겨레가 함께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남북해외가 손잡고 우리 힘으로 짓자고 했습니다. 시대가 좋아져 빛을 보고 '우리만족끼리' 문패도 달었습니다.

15년의 결실, 할일은 더욱 많습니다. 7천만 겨래가 주인이 될 참다운 통일을 위해 시대가 좋을수록 할 일은 더욱 많습니다.

HI MAN MEN IN 21 MEN IN 2

I 12월 4일 3시

소통전 | 홍일운동 19년을 최고하는 소문전

I 본행사장 및 사이버전시 [11월 15일부터 범인변출제이지]

범민련 해외본부 초청 ।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미주, 대양주등 범인경제외본부 초청

1 11% 30% - 12% 6% DR

[환영병사 국가보안법 투쟁, 방송용 참배, 범인연기념대회, 안찬동

박승주 | 부산구 6013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심합니다. 활동하시는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언제나 민 가협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게되어서 죄송하군요. 보내주신 영치 금과 책 잘 받았습니다. 어느덧 구속된지 5개월째군요. 다음 주에 선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 느덧 구속된지 5 개월째군요. 다음 주에 선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처벌하는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악법 도법이라고 했 던 가요.

그 악법 받으려 갑니다.

애초에 노동법 을건설 현장에서 잘 지켜주었더라면...

노동법은지키지 않고 형사법만 지키라고하니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하소연 합니까. 얼마 남지 않은 징역살이 마치고

나가서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한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편집자주 편집자주- 박승주(부산구 6013)님은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소속으로 지난 7월 5일 구속되어 1년 6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후원회소식 169호 • 7

2005년 부산 APEC[●]회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편집부

2005년 APEC 회의는 각 부문, 분야별 회의, 워크샵과 고위관리회의 등과 6월 1-3일 제주에서의 통산장관회의 9월 8-9일 재무장관회의 등을 거쳐 11.15-16 합동각료회의, 11.14-18 아펙기업자문단회의(대기업들의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제출되는 회의), 11.17-19 아펙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11월 18-19 '안보'와 '경제'에 관한 주요 결정들이 오가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 정상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이후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7대 역점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자유무역 증진 2. 반부패
- 3.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 4. 인간안보
- 5.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 6. APEC 개혁 7. 문화 간 이해 증진

그럴싸하게 포장된 7대 역점과제의 속셈을 살펴보면

[인간안보-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제를 적극 활용하고자했고 미국·러시아·일본·호주의 적극적 찬성에 비해시큰둥한 여러나라들을 수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설득하

고 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채택시킵니다. 이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현혹할 문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안보' 개념인 것입니다.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 인간안 보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 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 10개 항목의 대테러 조치가 승인됐고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됐습니다. 다 섯 차례 회의를 통해 해상보안 강화, 생물테러 예방, 보건안 보 강화, 기계 판독 여행증명서 발행, 대테러 역량 강화, 핵 사찰을 염두해 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서명 및 비준 등이 포함된 12개 국제협약 가입 권고 등이 합의했 습니다.

이 합의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의 대테러 조치에 따르면 출입국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담에서도 10개항의 대테러 조치 사항이 승인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위험 제거도 그 중 하 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 라인 미국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 결'은 최근 아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만 개 이상의 핵단두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핵 문제를 평화 롭게 해결할 거라는 전망은 위선입니다.

● APEC APEC (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은 전 세계 GDP의 약 60.4%, 교역량의 약 46.9%, 인구의 42%(2002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며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2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회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22005년 6월 제주 아펙 통상장관회의

지난 6월 2일과 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05APEC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국 등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APEC 제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농산물(공산품) 부문의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합의한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개도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교역량 중 46%를 차지하는 APEC의 이러한 결정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의 DDA 협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 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또다른 주요 의제인 서비스 분이에서도 각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수립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홍콩 각료회의에서 공산품, 서비스와 함께 농업,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등 여타 DDA 협상분이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도국의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좌초 직전에 이르렀던 DDA협상이 회생하도록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PEC 회의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펙 회의에서 공표된 파병 결정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결같이 부시의 전쟁을 응원하는 이 조치들에 한껏 맞장구쳤습니다. 부시는 2003년 방콕 회담을 이용해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논의들을 끌어냈습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틈틈이 주요 나라들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이즈미는 부시를 따로 만나서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노무현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고 방콕으로 날아가 부시한테 파병 결정 소식을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항구적 자유 작전 참여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떨까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도 그렇다고 미군을 더 늘리기도 힘든 미국은 아시아의 파병국들한테 구조 요청의 손길을 내밀 기회로 아펙을 활용하고자할 것입니다. 특히 11월 한국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 3위의 파병국인 한국에서, 아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파병 연장의 정당성을 얻고자조지 W 부시와 노무현은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자유무역 증진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미국은 아펙에서 FTAAP(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배타적지역화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EU,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의 경제블록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무역체제는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 세계 소득을 증진시키고 고루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자유무역'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특히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에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봉쇄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다른 지역에 자유 무역을 강요하기 위해 군 사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시장 개방과 자 유 무역 정책들이 전혀 평화스런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과일기업 치키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민 주적으로 선출되고 토지개혁을 단행한 과테말라 정부를 전 복시킨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자유무 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 평등은 강화되기만 했습니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WTO 체제 이후 10년 동안 농민 수는 해마다 50만 명가까이 줄어들 정도였습니다. 저들의 자유무역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활로를 열어주고, 해외투자, 국내투자 차별의 요소를 없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국제적인 규범으로확립하는 것입니다.

되레 저들의 자유무역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과는 정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2003년 미국 전역을 들썩 거리게 한 광우병 파동 기억이 생생한다도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운운하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기반혜택 공유? – 초국적 독점자본의 값비싼 특허]

APEC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는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을 생산, 배포, 이용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늘리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서비스는 시장의 거래비용(인건비, 이동, 운송비 등)을 줄이고 기업 관리 비용을 줄여 세계 어느 지역 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통제라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PEC은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협력 증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PEC 발족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선 진국에서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은 좀처럼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일본을 선두에 둔 기러기 모양의 동아시아 하청 네트워크 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협력은 상대적인 후진국의 낮은 인건 비와 원료를 동원하는 위계서열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APEC이 말하는 지식기반경제는 무역관련지적재산 권(TRIPs)을 독점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합니다. TRIPs는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의 기한을 20년까지 연장했고, 미생물과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도 보장했습니다. 인도 농민들이 자신들이 일군 땅에서 나온 씨앗을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여야 하는 것도 바로이 지적재산권 협정 때문입니다. WTO와 APEC이 말하는 '지식'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값비싼 '특허'를 의미합니다.

[반부패협약 -아시아구조조정을 통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 진출의 발판 마련]

아펙은 "반부패행동계획이야말로 아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점 과제야말로 아펙의 위선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1998년 아펙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을 놓고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시 미행정부의 대표로 나온 앨 고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정실 자본주의와 부패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여습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내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구역질나는 말이다."고 맞대응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입장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의 정경유착 때문이며 아시아의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책임 없다는 뜻입니다.

아펙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뉴스레터 2004년 12월호에 따르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부패가 효율적인 시장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설명 일색입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 엔론의 대규모 분식 회계 부정을 떠

올린다면 아펙의 '동아시아의 정실 자본주의' 비판은 모순과 위선에 가득 찬 구호일 뿐입니다.

아펙이 반부패를 핵심 구호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사유화와 기업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흔히 공기업이 부패 의 온상이라는 기사가 신문을 도배하고 난 뒤에 약속 모종 의 사유화 조치들이 발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펙이 발간하는 뉴스레터에 따르면 아펙은 반부패의 목 표를 "기업규제 완화와 상업화"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부패는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것이다."하고 말했습니다.

아펙의 반부패 행동은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빈곤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아펙 정상회담에서 '여성 의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 부산 회의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아펙 여성의제 채택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아펙 여성연대)는 이를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펙여성연대는 "여성 기업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무역자유화 정책의 성공은 여성 기업인들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아펙에서 다루는 '여성의제'는 평범한 여성이 아닌 여성 기성 정치인 및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문제에 치중돼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도, 여성 의 압도적 대다수의 삶은 여전합니다. 여성 취업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 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 가입률은 5.3%에 불과하 다는 통계수치가 이를 보여 줍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여성 들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여성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가사와 직 장생활의 양립'은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양육과 노인부 양, 출산의 의무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아펙이 원하는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은 여성을 신자유주의 가 원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표현되는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라는 대다수 여성들의 보 편적인 의제를 외면한 채, 일부 여성들에게만 기회를 제공 하며 여성들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아펙 여성 의제는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의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APEC 정상회의 사상 최로 여성의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했다'는 기만적인 선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는 아펙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과장된 경제적효과에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정부와 부산시는 아펙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 연간 지역총생산이 45조 원에 달하며 취업자가 159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APEC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전체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미치는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2004년과 2005년 동안 자그마치 APEC 행사를 위해 국비 729억원, 시비 1,729억원, 민자 140억원 합계 2,598억원이 투입됩니다.

각국 정상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선보이기 위해 노점상에 대한 싹쓸이 단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노

점단속 차량과 단속반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미 노점상이 철거된 곳에는 다시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 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6400여 노점상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고, 그 뒤로 해운대 슬라브촌을 강제철거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노점상, 판자촌을 싹슬이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 아펙반대국민행동 자료에서 간추렸습니다.-





12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조국 광복60년 기획시리즈

■일 시: 12월 13일(화)오후 7시

■장 소: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회문 우체국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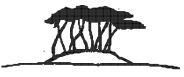
■작품명: 영원한전사

■줄거 리: 일제시기 항일유격대원 김석철이 일제에 의해 파괴된 혁명 조직을 복구정비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다가 변절자 로 인해 일본군에게 체포되자 혁명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다는 내용입니다.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산행

수락산의 절경을 기대하세요



■가 는 곳: 수락산

■일 시: 11월20일(일)오전10시

■모이는장소: 7호선 수락산역 대합실

■준 비 물: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북녘 조국으로 송환을 기다리는 비전향장기수들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표

지 난 10월 2일이었다. 가을 철새들이 남과 북으로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다.

바로 그날 판문점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휴전된 뒤처음으로 남녘에서 북녘으로 유해송환이 이루어졌다. 하루를 천년처럼 북녘조국으로의 송환을 기다리며 살아오셨던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선생님이 안타깝게도살아생전의 염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세상을 떠나신 뒤에야 그 유해가 신념의 고향, 사랑했던 아드님들 품에 안겨 고이 잠드시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군사분계선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이 땅에서만 말해지는, 외세와 분단이 빚은 낱말이었다. 역사에서 가정이란부질없는 일이지만 일제로부터 조국광복을 이룩한 뒤당시 온 겨레의 역사적 과제였던 자주독립 통일정부가세워졌다면 조국분단과 민족분열은 없었을 것이고 외세와 분단에 맞서 자주통일 투쟁과정의 필연적 산물이었던 비전향장기수도, 이들을 반드시 신념의 고향으로돌아가게 할 '송환'이란 말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우리 땅을 우리가 가고오 고 하는데 외세가 가로막고 있었다.

정순택 선생님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곳에 비전향장 기수송환추진위원회 대표이고 정순택 선생 민족통일 장 장례위원장이면서, 특히 정 선생님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시면서 사실상 법적 보호자였던 필자마저도 선생님 유해와 유품을 북녘 아드님께 보내드리는 '판문점'을 갈수가 없었다.

임진강은 이날도 북녘에서 남쪽으로 휴전선을 넘어 유유히 흘렀고, 가을 철새들이 군사분계선 창공을 날 고 있었지만 선생님 유해를 미중 보내던 관계자들은 제 땅에서 외세에 의해 발이 묶여 있어야 했고 민족 전 래의 최소한의 의례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와 '송환'을 말하자면 그간에 있었 던 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감 옥에 갇혀 있을 때는 비전향장기구금양심수로 불리었 었다. 바로 '양심수' 였었다. 수십 년을 감옥에 갇혀있 으면서도 통일조국에 대한 염원과 정치적 신념 그리고 양심을 지켜오고 있었기에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가 발 족할 때부터 이분들을 양심수로 규정했었다. 양심수로 규정했었기에 (단순한 장기수가 아닌) 석방운동에 힘 을 받게 되었고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원 회 같은 해외인권단체로부터도 석방의 목소리를 높게 했었다. 이분들은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감호처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뒤 끊임없는 석방운 동으로 노약자, 병약자로 1990년부터 몇분 씩 비전향 으로 출소했고 1999년엔 남아 있던 19명이 모두 풀려 나게 되었다. 양심수후원회 창립시기 270여명 장기구 금양심수가 10년 만에 전원 석방되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의 처음 북녘 송환은 1993. 3.19일 인민군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선생이었다. 이인모 선생은 '인민군종군기자' 임과 '전쟁포로' 로서의 국제법상권리 그리고 정전협정 규정을 들어 북녘 조국으로의송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KNCC, 인권위원회 등 인권, 종교단체들이 '이인모노인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 송환운동을 했었다. 그리고 이인모 선생은 뇌출혈로 부산대학 병원에입원하면서 송환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되었다. 마침 문민정권이들어서고 통일원 장관에 한완상 장관이취임하게 되자 이인모 선생의 송환은 급물살을 타게되었다. 한완상 장관은 이미 양심수후원회에 큰 성원을 해오고 있던 '새길교회'에 함께 하면서 비전향장

기수 석방과 송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두 번째 송환은 잘 알려져 있듯이 2000년 9월 2일 63명이란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대개 이때 송환을 '1차송환'이라고 한것은 이인모 선생송환과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때는 단지 위급한 병세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람들 기억에서 잊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9.2 송환이 남북 사이 합의에 따라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9.2 송환이 이루어지기까지엔 25개 인권, 종교사회단체로 구성한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컸었다. 이때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컸었다. 이때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성격상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하나는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로 원적지로의송환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등반통일반인권 악법으로 장기구금 되었다가 풀려난 비전향장기수의구속되기 전 소속지역 거주지로의 송환문제였다. 그러나이러한성격 차이에도불구하고 이들은 다같이

- ◎부당하게 장기구금 당했다는 점.
- ◎ 잔혹한 고문 등 사상전향공작에서도 통일염원과 정치 적 신념을 지켰다는 점.
- ◎ 오랜 옥고에서 풀려나 형식상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보안관찰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
- ◎ 고향과 가족이 그리고 구속되기 전 거주지가 북쪽이 었다는 점,
- ◎ 자유의사로 귀향의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0년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있기까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는 정부당국 일부부처의 냉전논리와 상호주의라는 억지 논리에 맞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당위성과 합법칙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마침내 6.15 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게 했었다. 그 당시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을 요약하면

◎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

- ◎ 인류가 지향해 온 보편가치로서 인권문제였고.
- ◎ 얼어붙은 남북당국 사이의 불신을 풀고 화해, 협력과 대단결로 가는 불씨가 될 것임을 강조했었다.

이렇게 1993년 이인모 선생님과 2000년 63명이 신념의 고향을 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송환' 이란이름이 아니라 '북한 방문' 형식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 듯이 정순택 선생님은 비록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시신으로 북녘 땅으로 보내졌지만 처음으로 '유해송환' 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었다. '송환'이란 말이 왜 중요한지를 Corea 전쟁 정전협정문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정전협정 제3조 51 항 C 목에서 표시된 우리말은 '송환'이었고 영문은 Repatriation이었으며 중국문은 견반(遺返)이었다. 본국, 본적지, 원래의 거소지 등으로 돌려보냄을 뜻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산가족 재결합 차원의 의미를 넘어 '반드시' 보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정순택 선생님은 비록살아서 '송환' 으로 북녘 조국땅을 밟지 못했지만 '유해송환' 이란 이름으로 가시면서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북녘송환에 보다 떳떳한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또한 정부당국은 처음으로 '송환'이란 용어를 씀으로써 비전향장기수(2차) 송환의 당위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9.22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전향 장기수북송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인도주의적, 인권,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말했으며 송환추진위원회 대표들이 한완상 적십자총재와 통일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송환방침'을확인한 바 있었다. 2차 송환운동이 진행되고 이제까지 정부당국이 비공식적으로 말해오고 있던 '상호주의' 등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지난 2001년 2월 5일 비전향장기수 33명이 2차 송 환을 요구하고 나선지 5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김태 수, 김경선, 장광명, 정순덕 선생님에 이어지난 9월 30 일 정순택 선생님이 또 다시 세상을 떠나심으로 2차 송환 희망자는 그만큼 줄게 되었다. 남은 분들도 80~90살까지 10명, 71~79살까지 17명이고 60대가 1명일 정도로 대부분이 고령자들이다. 또한 오랜 옥고 의 후유증등 2~3가지 질환을 앓고 있어 살아생전의 송환이 더욱 시급한 상태이다. 최근 송환 관련 정부당 국의 긍정적 모습을 보면서 새로 송환을 희망한 분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부에 직접 신청한 분들이 있어 실제희망자수는 몇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정부에서도 2차 송환에 대해 '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간의 조율과 희망자들에 대한 의사 타진 등 절차가 있을 터이지만 하루를 천년처럼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노약자이고 병약자라는데서 더 이상 비극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냉전언론들의 색깔론에 구 애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여러 인권, 종교 사회단체가 많은 힘을 기울여왔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단순히 고향을 찾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와분단이 빚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일로, 그리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로써 전민족적 관심 속에 송환이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정치권의 관심이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민주노동당은이 땅의 민주주의발전과 인권개선, 반전평화와 자주통일, 사회진보와 민중들의 생존권문제에서다른 보수정당들에 맞서 정책대안과 실전투쟁을 다해오고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이다.

정순택 선생님 빈소에도 가장 먼저 조화를 보내왔었고 김혜경 대표 등 당직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시했었다. 인도주의와 인권문제이면서 남북사이의 화해협력과 민족대단결의 의미가 있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에 민주노동당의 헌신적 역할을 기대한다.



📂 열일 곱번 째 인 권 콘서 트

민가협 20년 기념 '보라빛 수건'

■일 시: 2005년 12월 10일(토)오후 5시

■장 소: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출 연: 정태춘 박은옥/김종서/이은미/신해철 NEXT/ 크라잉넛/노래를 찾는 사람들

민 가 협 20년 을 맞이 한 2005년에 열리 는 열일 곱번째 인권 콘서트는 특별할 것 없던 평범한 어머니가 시대의 고난 을만나 20년 세월을 인권지기로 살아온 "민가협업마", 그 '어머니의 삶'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나와는 사상이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신분이 다르다고 배척 해온 우리 안의 뿌리 깊은 편견 과 차별 의 벽을 허물어 뜨리 고자 합니다. 다름이 있어 아름 다운 세상. 그 아름 다운 밤을 여러 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북녘땅 평양은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은 공원 같은 곳

김명숙 | 회원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요? 어디 멀리 외국에 다녀 오셨나보죠?" 멀리는 아니고...글쎄... 이주 가까운 곳이죠...

평양을 다녀온 나에게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물어 온다.

멀지도 않고 다른 나라도 아닌 북녘 땅 평양, 뜻하지 않게 나에게 수영선배가 평양을 가자고 했을 때부터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3일 개천절

인천 공항에 도착, 9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북한고 려항공이다. 비행기에 오르니 안내원이 밝게 웃으며 남쪽 사람들을 반긴다. 출입국 허가서 작성할 때 북한 사람들을 위해 성의 있게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북, 남측 보다는 북조선 남조선으로 했다.

생일을 기록하는 난에는 '난 날' 이라는 우리말이 정 겹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말도 북한에서는 명확 하게 우리말을 사용한다.

한 시간 반이 지나 착륙하기 전 비행기 안에서 내려

다 본 평양의 모습은 넓은 평야에 녹음이 자연 그대로 다. 맑은 가을하늘, 황금빛의 들녘, 하늘높이 뻗은 나무 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풍경들이다. 평양공항에 도착, 오고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게 꿈인가? 내 가 분명 북녘 땅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왔던가. 두리번 거리며 확인을 했다.

버스를 타고 평양의 거리를 지나니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든다. 남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이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등장한 소박한 시골사람들이 연상된다. 우리일행을 위해 북한 안내원 두 사람이 우리를 보며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니 햇빛에 그을린 피부에 웃는 모습이 정겹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깍듯하다. 건물들 색깔은 회색이나 흰색이 평양거리의 일관성을 이룬다. 건물에 이따금씩 보이는 구호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우리식대로 살아 나가자.]문구를 보니 감정이 뭉클해진다.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

을 관철시키자.][전 인민의 인텔리 화] 등의 구호들은 북한 사람들의 강인한 단결심과 각오, 살아있는 인문 사회로 보인다.

북과 남은 너무나도 대조적 머무를 곳은 평양 시내에 있는 46층 건물 양각도 호텔이다. 방에 들어서니 책상 앞에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문구가 반겨준다. 열렬히 를 의식적으로 되뇌어보니 진심으로 라는 말 보다 훨씬 진정성에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21층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두개의 대동강물이 양쪽으로 유유히 흐르고 새들이 주위를 맴돌며 평화를 즐기고 있다.

호텔식당에 들어서니 접대원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인사로 반긴다. 식사는 뷔페지만 가지 수가 많지 않고소박하다. 맛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조리를 했고 담백하고 깔끔하다. 먹을거리가 이처럼 안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남한의 경우를 보면 음식을 맛과 양에 가치를 둔다. 식당의 음식들은 화학조미료에 가짜양념들, 맛은 자극적이고 색들은 요란하고 유치하다. 질 보다양이라고 그릇들도 얼마나 큰지 모두 그 많은 양들을 먹고 웰빙에 다이어트가 유행이다. 음식을 만들어 이렇게 식탁에 오기까지 수고한 북한 사람들의 손길을느끼며 식사를 마치고 만경대를 가기위해 버스에 올랐다. 함께 다니는 북한안내원이 내 옆자리에 앉게 되자이야기를 할수 있었다.

"평양의 건물들에는 구호들이 걸려있는데 눈에 들어옵니다. 선생님은 어떤 구호가 맘에 듭니까?"

"(웃으며) 제가 좋아하는 구호는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입니다. 미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차가지입니다."

"저는 지향성에 대해선 과거나 미래 보다 현재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보니 정리가되는군요."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 뒷자리에 않아 있던 일행 중 남한의 한사람이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은 듯 안내원 에게 슬슬 말을 걸기 시작한다.

"남쪽에는 화가 나면 욕이라는 걸 쓰는데 이곳에서 도욕이 있습니까?"

"물론 이곳의 사람들도 감정이 있으니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잘 안합니다."

그 대답이 석연치 않은지 술이 아직 덜 깬 목소리로 또 물어온다.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가치 없는 질 문에 대답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했더니 "무가치한 질 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은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면 고급한 인간이 못됩니다. 이성의 바침 속에 감정이 있고 감정 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라며 얼굴표정은 웃지만 목 소리는 진지하다.

고향집 같은 만경대 김일성주석 생가인 만경대를 둘러보니 어릴 적 드나들던 외가 집 정겨운 시골집 같다. 문 밖을 나와 집 주변을 둘러보면 나무들과 꽃들이 안정감을 이룬다. 일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 하여 이름을 만경대로 불리 운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일 때, 일행들과 안내원은 어느 새 발길을 옮기고 있다.

1945년 김일성주석이 항일투쟁을 마치고 귀국한 후처음으로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다던 그 장소에 개선문을 세웠다 개선문은 화강암 1만 5천개로 만들어졌으며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70개의 진달래꽃이 새겨져 있다. 설명을 해주는 안내원의 목소리는 경쾌하고 다정하며, 몸짓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다. 하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곳인데 북한문화를 알도록성의 있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조국에 대한 자긍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의지로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낭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그녀의 주변에는 듣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그저 사진 찍어대느라 온통 여기저기서 후레쉬를 터트린다. 것도 모

자라 안내원에게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 언제나 거절하지 않는다. 남한사람들은 어딜 가나 경황없고 순서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총체적 예술 공연 '아리랑' 능라도에 위치한 5.1경기 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보기위해 자리를 옮겼다. 이 경 기장은 1989년 [세계청년학생평양축전]의 개막과 폐 막이 진행됐었고, 15만 명을 수용할수 있다.

민족의 역사와 넋이 담겨있는 아리랑을 주체로 '민족의 운명사' 와 '세시풍속' 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대집 단체조이자 예술 공연은 첫 장부터 무대의 조명과 카 드섹션이 분위기를 압도한다. 이곳을 오기 전 안내원 은"아리랑공연을 보려면 눈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눈웃음을 치며 말했던 생각이 난다. 카드섹션을 보려고 하면 공연단들을 볼 수 없고,공연하는 모습들을 보자면 카드섹션들이 눈을 멈추게 한다.

영국의 다니엘 고든감독이 만든 영화 [어떤 나라]를 남한에서 보고 아리랑 공연을 실제로 보니 더욱 실감 이 났다. 서장 [아리랑]을 시작하면서 '반갑습니다' 익 숙한 노래로 열기를 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1장 [아리랑 민족]을 주제로 1경 '두만강을 넘어' 란 제목이 배경미술로 전개되면서 음악이 흐르자 많은 사 람들이 동족상잔의 뼈저림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

2장 [선군 아리랑] 의 2경 '활짝 웃어라' 에서 신의주 본부유치원 아이들의 집단 줄넘기기교는 1장에서 어 두워진 기분을 전환시킨다. 어디에서도 아이들은 어른 들에게 꿈과 희망이다.

3장의 [행복의 아리랑] 4장의 [통일 이리랑]에 이어 종장 [강성부흥 아리랑]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2시간동안 진행됐던 아리랑 공연은 감격 또 감동이였다. 완전히 일치된 마음으로 움직이는 카드섹션과 춤 공연, 이것이 종합예술이다. 완전히 하나의 마음이아니고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공연의 내용에 담긴 한민족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진한 동포애로 단결되어있는 북한 사람들은 민족적 자긍심과 예술적 가치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과연 이들을 누가 침

략할 수 있단 말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이들을 건드릴 수 없다.아니 전드려서는 안 된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어둠으로 가리고 공연장을 나오니 북한 사람들 인 파에 수영선배와 내가 서있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며 "또 오십시요. 다시 오시라요"한다. 북한 사람들을 보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적인 군사주의에 대항하고,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북한의 자주적인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력갱생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과 남한에서는 외세의 도움으로 배불리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어떻게 비교 할 수 있는가? 북한 사람들 앞에서 남한이 더 잘 산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더 잘사는 것이고 못사는 것인가?

평야의 아침 빛 평양에서 맞는 아침은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한다.21층에서 내려다보는 평양의 아침거리는 안개가 끼어 고요하고 신비롭다.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간간이 보인다. 서울에서 이 시간이면 자동차 가 도로를 도배하는데 평양의 아침거리는 여유롭다. 아침을 일찍 열고,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집으로돌아가는 이들의 문화가 남한에도 있었다. 그러나 소위 문명이라는 복잡한 사회체제와 마주친 그때부터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밤늦도록 불야성을 밝히고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쓸쓸해지는 기분을 안개 낀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오늘 보게 될 동명왕릉을 기대하며 아침을 연다.

동명왕릉은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으로 1974년에 발굴되었다. 왕릉구역에 있는 정릉사 건축물 색깔은 남쪽에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갈색에 가까우며 매우 고상하고 은은하다. 유적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과 안내를 해주는 북한 안내원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겸손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다. 설명해주는 목소리는 경쾌하고 언어는 정확하다. 안내원 앞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그 시대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실감난다. 역사를 알려면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역사 공부를 했던 가? 교과서를 보며 시험을 준비하기위한 공부만 했지 이렇게 역동적이고, 재미를 느끼면서 하지는 못했다는 기억이다.

북한을 인정하기 1박2일의 평양여행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통일의 의미,너무 나도 대조적인 북한과 남한사람, 그러나 북한의 대동강물이 흘러 남한의 한강을 만나 이루듯 같은 꿈을 꾸는 나라, 미래의 목표가 같은 민족, 가짜가 없는 나라,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는 나라, 인정이 많고, 착하고 친절하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한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이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생활방식이나 이념

들, 말과 행동, 그들의 모두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으며 당당하고 마땅히 받아야한다. 어느 나라도 그들을 따돌릴 수 없으며 침략할 수 없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냥두지 않겠다!

북한을 다녀와서 돌아보니 난 너무 풍요롭게 살지 않았나...반성을 해본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난은 에 너지를 생산한다. 물질은 이제 그만, 단순하고 소박하 게 살자 다짐하며 다음 과제 는 북한의 유치원과 보육 시설을 보는 것이다.

공항까지 배웅하려고 따라와 준 북한의 리철민 안내 원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손을 내미니맞잡은 나의 손에 힘을 꽉 주며 "또 오십시오" "꼭! 다시 오십시요" 한다.

쌀협상 비준안을 북한인권법과 연계처리 야합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3주체연석회의를 조속히 구성할 것

지난 11월 3일 한다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쌀협상비준안을 북한인권법과연계하여 처리 하겠다'라고 하였다. 아니다다를 파기간 여당과는 상대적으로 쌀협상비준의 문제에 있어 신중했던 것처럼 보였던 한다라당의 태도는 농민, 농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북이데올로 가공세를 파는데 하나의 '협상 물' '흥정 물'로 쓰기위한 것이었음이 이번 에 여지없이 드러났다.쌀 을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흥정 물로 여겨 온것이다.

게다가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연계처리를 합의' 했다고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이에 지난 11월 7일 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긴급 성명 을내고 정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농민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대화와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없이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한다면 시,군청 앞에 쌓여있는 야적 된벼에 일제히 불을 놓고 정권퇴진운동을 불사한 강도 높은 투쟁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밝히 고정부여당과 한나라당에게 지난 4일,농민단체와 정치권이 합의한 농업 회생대책 미련을 위한 3주체연석회의를 조속히 구성할것을 촉구하였다.

장기수 선생님, 민가협어머니들과 함께한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역사기행 -지리산을 다녀와서-

이용준 | 회원



지리산. 처음이다. 말로만 그렇게 듣고 남원이나 지나 갈때 지리산 이정표나 보던 것이 고작이던 내가 드디어 부산 촌놈 티를 벗고 지리산 노고단이라는 곳을 토요일 이른 아침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싫고 떠났다. 일상의 일이란 게 늘 빠듯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지라 마음의 여유를 않고 가는 역사기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리산만큼은 그리고 2차 송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직고 있는 선생님들과 어쩌면 마지막이 될 기행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일상의 만사를 제쳐 놓고 가기로 마음덕은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직장에서 피아노 독주회 하나차려 놓고 팔리지 않는 표로 인해 얼이 빠질 정도로 뛰어다 닌지라 몸살기 있는 고단한 몸이지만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간다는 기분은 여전히 나의 역마살을 흥분케하는 데는 충분했다. 가는 동안 취중에 도취되어 노곤한 잠을 자는데 점심식사 할 곳에 다 다 왔단다. 맛있는 추어탕집이다.

그런데 이 식당은 추어탕도 추어탕이지만 김치찌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란다. 먹어보니 안양에서 시켜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꾸밈없는 맛이다. 소 주가 절로 생각난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노고단 아래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노고단 정상까지 인위적 인 길을 잘 닦아 놓아 산행의 매력은 별로 없으나 지리 산 3대 봉이라는 매력 하나로 올라가 본다. 그런데 이 게 웬일. 추적추적 비가온다. 바람도 약간은 쌀쌀하다. 절반 목적지 기준 절반 정도를 왔을 때, 권오헌 회장님 과 작전회의를 갖는다. 선생님들의 건강상태와 향후 일정을 위해서는 철수하자고, 더 활기찬 기행을 위하 여 작전상 철수를 감수한다. 내려와서 대전 양심수후 원회원들과 재회했다. 모르는 얼굴이여도 갖은목적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이라 무척이나 반갑다. 그리고 버 스를 타고 행군을 시작하다가 시암재 고개의 절경을 이루어 잠시 내여 사진공방이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일정을 바꿔 화엄사를 먼저 찾기로 했다. 드디어 화엄사 도착.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문이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찾으니 기분이 좋다. 절. 절을 찾 는 마음은 항상 들뜨고 즐겁다. 그리고 항상 기대가 된 다. 그런 기대만큼 화엄사의 부처님은 내게 꾸지람을 주는 듯하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하기야 어 리석게 사는 것이 지금 뿐만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스 스로 웃음이 절로 날 정도이다. 화엄사의 한가로운 시 간을 잠시 보내고 숙소로 내려가 여장을 풀었다. 차려 진 저녁을 먹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전라도 음식은 손 맛이다. 어쩌면 전라도로 가는 즐거움은 음식맛 때문 인지도 모르겠다. 저녁을 먹고 큰 숙소에 둘러 앉아 통 일광장에 김교영 선생님의 지리산 빨치산 투쟁의 내용 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다. 빨치산 활동에 고개 숙 이는 숙연함만을 자아낸다.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 족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에 되살려

계승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김교영 선생님의 빨치산 항쟁을 경험으로 요약하자면

- 1. 원칙을 사수할 것.
- 2. 끊임없이 전술을 연구할 것.
- 3. 항상 총화할 것.

원칙, 전술연구, 총화. 평범하면서도 우리 투쟁의 진 리와도 같은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긴다.

강의를 끝내고 다시 식당으로 내려와 기행의 하이라 이트. 뒤풀이 개봉박두. 뒤풀이 사전부터 심심한 관심 을 불러 일으켰다. 과연 사회자가 재미있게 진행할 것 이냐 하는 것이다. 사회자는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주 최측으로 떠 넘겼다. 그러나 끝나고 반응 그리 나쁘지 는 않은 것 같다. 명가수에서, 음치에 이르기까지 노래 부르는 즐거움이 이보 다 즐거운 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특히 문상봉 선생님과 김영식 선생님의 노 래는 지금도 기억에 남고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 기억 될것 같다. 여기서 문제 하나.

문제1. 과연 이 자리의 사회자는 누구였을까요? 문제2. 뒤풀이 자리에서 음치는 누구였을까요?

위의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은 연락 바란다. 상품으로 12월 16일 안양문예회관에서 있을 장사익 콘서트입장권 20%할인 혜택을 무한정으로 드리겠다.(단, 그날 참석자는 제외)

자정에 이르러서야 뒤풀이는 마무리되었다. 전통적으로 뒤풀이에 강세를 보였던 선배님들이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노혁 선배는 중도 하차하고 김호현 선배님도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잠자리에 드신다.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려 김교영 선생님의 주도로빨치산의 격적지 였던 하동의 최참판댁으로 가서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았던 박경리의 소설 토지 촬영지를둘러보고 김교영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차를 전남 곡성 가정역으로 옮겼다. 정말 모든 것을뿌리치고 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강변이었다. 강변을 산책하고 다시 점심을 먹기 위해 전주를 향했다. 40년 전통의 전주비빔밥집에서 그 집만

의 독특함이 베여 있는 비빔밥과 뜨거운 모주를 먹었다. 뜨겁게 먹는 모주는 나도 처임이라 신기하면서도 맛나는 술로 또 한 번 먹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 집에서 진주비빔밥과 전주비빔밥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앎의 즐거움도 동시에 느낀다. 점심을 먹고 서울로 향했다. 차가 그리 막히지 않아 6시경에 서울에 도착했다. 고단한 몸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밀린일을 할 걸생각하니 또다시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러나 어쩌랴. 그게 우리네 인생인데. 어느 시인의 말대로 누가 언제나는 살고 시는 사람 보았는가. 역사기행을 다녀 온 사람인만큼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마음 먹은 만큼 실천하는 것이 운동으로 인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진해야 될 덕목 아니겠는가. 원칙, 전술연구, 총화.이 세가지를 다시 머리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와 이 졸렬한 글을 쓴다.

지리산

(이용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을 보고 온 후 눈물이 나더군요. 다시 당신을 찾아 달려가고 싶었어요.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옷을 잘 갖춰 입고 허연 스카프를 둘러친 당신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바보 같아요. 당신을 등지고 속세로 떠나는 저의 모습이 참 한심해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아서

이창희 | 회원



목요일부터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름 그 자체였다. 모든 사람의 기대로 인해서였는지 좋은 날씨는 산행 당일까지 이어졌다. 다섯째 주인 10월에 넷째 주가 아닌 10월 16일 셋째 주에 산행을 한 까닭은 11월 5일,6일 주말 '2006년 양심수 후원회 지리산 역사기행'이 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날씨 탓에 도봉산에는 인파로 메워졌다. 송세영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십만이 온 것 같다. 양심수후원회, 4월혁명 회, 범민련 등이 함께 하는 오늘 산행의 대오는 신현부-모 지희 가족, 나순석 가족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20명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원래 코스를 대신하여 도봉산에서 우이암 을 넘어 그린파크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했다. 그래도 사람은 많았다.

청명한 날씨는 산의 자태를 선명하게 선사하였다. 북한산 능선이 또렷하게 눈으로 안겼다. 여기에 단풍만 들었다면 '금상첨화' 였는데 아직 도봉산은 단풍철이 아니었다. 그러나, 맑은 날 산은 맨 몸과 푸른 옷만으로도 아름다웠다.

김교영 선생님의 부인 이해옥 선생님은 무릎 관절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날씨와 산이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어 점심까지 드신 힘으로 우이암까지 올랐다. 내려오는 길이 험해서 하산 길에 무척 고생하셨으나, 류종인 선생님의 부인 유인호 선생님과 약속하여 다음 산행에도 나오신다고 하셨다. 다들 힘든 산행이었음에도 날씨와 산의 마술에 걸려무척 즐겨웠다.

등산길에 오순도순 싸온 밥도 먹고, 하산길에 서로 좋은 강의를 들으며 인사도 했다. 4월혁명회 공동대표 정병호 선생님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포디즘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에 대해 올바른 비판의식을 심어주셨다. 요지는 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국가', '민족' 등의 해체와그에 따른 다양성으로, 아래에서는 포스트 포디즘이라는 노동의 유연화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국가의 퇴각' 등 현재 사회를 재구성하여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속에서탈냉전 등의 긍정성은 있지만 다양한 거짓말과 유연한 노동통제, 즉 새로운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지배구도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다. 주변 산행객조차 유심히 듣는 좋은 수업이었다.

내려와서 맛이 없어야 사먹겠다는 도토리 묵 집에서 매우 맛있게 뒷풀이를 하고 모든 산행을 마쳤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우이동 장미원쪽에서 형제숯불갈비를 운영하시는 신원호-박윤경님 댁에서 뒷풀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두산행에 지쳐 내려오자 마자 산입구 첫 집에서 짐을 풀었던 것이다. 아쉬움에 권오헌 회장님을 비롯한 몇 몇 일행은 그 갈비집에 가서 뒷-뒷풀이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 우이동쪽산행길에서는 반드시 뒷풀이를 형제 숯불갈비에서 하자고다짐하였다.

후일담이 있다. 이 날 산행에는 여러 분의 장기수 선생님께서 오셨지만, 많은 분이 함께 하시지 못하셨다. 그 이유는 평양 아리랑 공연을 보기위해 10월 20일에 출발하시기로 되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정구 교수님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묵은 색깔 논쟁으로 출발이 연기되었다. 청명한 가을날씨처럼 역사도 맑아지고, 가을 단풍을 즐기듯이 '빨갱이 (?)'라는 붉은 색(?)도 마음 놓고 좋아하는 시대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 경향만평 2005년 10월 20일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FAX: 02-888-4470 ■E-mail: yangsimsu@hanmail.net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이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 성 명 | | | | 예금격 | 5 | | | | |
|----------|------|---------|---------|---------|--------|-------------|----------|--------|---|
| 연락처 | | | | 거래은행 | | | | | |
| 예금주민등록번호 | | | | 계좌번호 | | | | | |
| 핸드폰번호 | | | | 이메일 | 이메일 | | | | |
| 주 소 | | | | | | | | | |
| 후원금액 |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민 | <u>ŀ</u> 원(|), 30만원(|),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2005년 10월 25일 현재 /민가협 조사 집계

| 이름 | 분류 | 소속 | 사건명 | 구속날짜 | 적용법규 | 형 량 | 만기일 | 수감지 | 가미결 |
|-----|-----|-------------|-----------------------|----------|----------|-----------|---------|-----------|-----|
| 이종화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07-05 | 업방,폭력 | 2년 | 항소중 | 부산구 6061 | 미결 |
| 최석영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04-08 | 업방,폭력 | 1년6월+1년 | 2007/11 | 부산구 6019 | 기결 |
| 이문희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크레인시위 | 05-05-17 | 업방,폭력 | 1년6월 | 항소중 | 부산구 6016 | 미결 |
| 박승주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07-05 | 업방,폭력 | 1년6월 | 2007/01 | 부산구 6013 | 기결 |
| 최영철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05-23 | 업방,폭력 | 2년 | 항소중 | 부산구 6008 | 미결 |
| 박해욱 | 노동자 | 건설플랜트노조(울산) | 파업 | 05-07-05 | 업방,폭력 | 2년 | 항소중 | 부산구 6060 | 미결 |
| 윤종희 | 노동자 | 기륭전자 노조 | 비정규직 철폐농성 | 05-10-17 | 건조물침입 | | | 영등포구 4173 | 미결 |
| 김소연 | 노동자 | 기륭전자노조 | 비정규직 철폐농성 | 05-10-17 | 건조물침입 | | | 영등포구 4069 | 미결 |
| 김우용 | 노동자 | 기아자동차노조 | 경제 특구 반대시위 | 04-02-22 | 업방,집시 | 2년6월 | 2005/12 | 청주교 65 | 기결 |
| 김용직 | 노동자 | 민주노총(충북) |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 05-06-13 | 집시, 특공 | 1년6월 | 상고중 | 대전교1313 | 미결 |
| 김성환 | 노동자 | 삼성일반노조 | 노조활동관련 | 05-02-22 | 명예훼손,정통법 | 8월 | 상고중 | 부산교 906 | 미결 |
| 구재보 | 노동자 | 세원테크노조 | 이현중열사 관련 | 03-12-22 | 폭력, 업방 | 1년6월+2년6월 | 2006/04 | 대전교 1959 | 기결 |
| 박용규 | 노동자 | ㈜동진이공 노조 | 노조활동 관련 | 05-06-29 | 공방 | 8월 | 2006/06 | 대구교 1559 | 기결 |
| 엄기준 | 노동자 | ㈜유성기업 노조 | 노동지대회(11.9) | 03-12-10 | 집시, 폭력 | 1년6월+2년6월 | 2007/12 | 대전교 2999 | 기결 |
| 신재교 | 노동자 | 하니닉스 하청노조 | 노조활동 관련 | 05-10-21 | 집시, 폭력 | | | 청주서부서 | 미결 |
| 박태규 | 노동자 | 화섬연맹 | 노동지대회(11.9) | 03-11-12 | 집시, 폭력 | 1년6월+1년6월 | 2006/11 | 부산교 1406 | 기결 |
| 전욱용 | 기타 | 개인 | 북한방문 | 04-11-18 | 국보 | 3년6월 | 2007/05 | 서울구 29 | 기결 |
| 이승규 | 재야 | 다산인권센터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5-07-28 | 병역법 | 1년6월 | 2007/01 | 수원구 813 | 기결 |
| 이원표 | 재야 | 사회당(대전)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4-11-02 | 병역법 | 1년6월 | 2006/05 | 대전교 800 | 기결 |
| 문상현 | 재야 | 사회당(서울)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5-07-19 | 병역법 | | | 청주교 844 | 미결 |
| 윤치고 | 재야 | 사회보호법출소지모임 |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 04-06-20 | 특가법 | 1년+6월 | 2006/02 | 원주교 891 | 기결 |
| 임성환 | 재야 | 아웃시이더㈜ 대표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4-09-08 | 병역법 | 1년6월 | 2006/03 | 영등포구 2579 | 기결 |
| 염창근 | 재야 | 이라크평화네트워크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4-12-01 | 병역법 | 1년6월 | 2006/06 | 충주구 654 | 기결 |
| 최진 | 재야 | 작은누리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5-06-28 | 병역법 | 1년6월 | 2006/12 | 청송제2교 132 | 기결 |
| 강태운 | 재야 | 전 민주노동당고문 | 회합통신 사건 | 03-08-15 | 국보 | 6년 | 2007/08 | 대구교 90 | 기결 |
| 임재성 | 재야 | 전쟁없는세상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5-01-28 | 병역법 | 1년6월 | 2006/07 | 충주구 865 | 기결 |
| 김영재 | 재야 | 전철연 | 강제철거반대(상도동) | 04-01-19 | 공방, 폭력" | 2년 | 2006/01 | 서울구 76 | 기결 |
| 채남병 | 재야 | 전철연(교양풍동) | 강제철거반대 | 05-01-31 | 폭력, 공방 | 2년6월 | 항소중 | 의정부교 664 | 미결 |
| 조영귀 | 재야 | 전철연(수원망포) | 강제철거반대 | 05-02-17 | 집시, 폭력 | 1년6월 | 상고중 | 서울구 2658 | 미결 |

| 남현희 | 재야 | 전철연(십정동) | 청와대앞 1인시위 | 05-07-04 | 집시, 폭력 | | | 서울구 27 | 미결 |
|------|----|------------|------------------|----------|------------|------|---------|-----------|----|
| 김학명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15 | 미결 |
| 성낙경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5-03 | 화염병, 치사 | | | 수원구 339 | 미결 |
| 한호석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51 | 미결 |
| 홍경희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5-20 | 특공 공방 | | | 수원구 414 | 미결 |
| 이영자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157 | 미결 |
| 방영철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46 | 미결 |
| 정형용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37 | 미결 |
| 손정민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29 | 미결 |
| 김정덕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40 | 미결 |
| 정용표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30 | 미결 |
| 이병윤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25 | 미결 |
| 김완규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19 | 미결 |
| 유경렬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48 | 미결 |
| 정창윤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58 | 미결 |
| 김희수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38 | 미결 |
| 지광호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17 | 미결 |
| 김기준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01 | 미결 |
| 장광배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24 | 미결 |
| 강재희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21 | 미결 |
| 이재남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03 | 미결 |
| 배용식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36 | 미결 |
| 이용이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34 | 미결 |
| 서창석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50 | 미결 |
| 최진용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13 | 미결 |
| 김흥중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치사 | | | 수원구 306 | 미결 |
| 이복만 | 재야 | 전철연(오산수청동) | 강제철거반대 | 05-06-08 | 폭력, 화염병 | | | 수원구 328 | 미결 |
| 오태양 | 재야 | 좋은벗들(시)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4-08-30 | 병역법 | 1년6월 | 2006/02 | 충주구 894 | 기결 |
| 유호근 | 재야 | 희망동네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5-02-17 | 병역법 | 1년6월 | 2006/08 | 의정부교 1550 | 기결 |
| 임치윤 | 학생 | 동아대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4-09-07 | 병역법 | 1년6월 | 2006/03 | 부산교 1655 | 기결 |
| 박지현 | 학생 | 중앙대 | 한쵄 불퇴(11기)스타이커시위 | 05-09-21 | 국보 집시 | | | 수원구 11 | 미결 |
| 조정의민 | 학생 | 한국예술종합학교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 05-05-17 | 병역법 | | 항소중 | 서울구 2322 | 미결 |
| | | | | | | | | | |

♣ 이런일이있었어요

01--

- 정순택 선생님 장례위원회 명칭과 장례위원회 최종 구성하다. 명칭은 '애국통일열사 정순택 선생 민족통일장'으로 하고 원로 선생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장례위원장에는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현민기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으로 하고 호상에는 고성화 선생님, 집행위원장은 노진민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 집행위원장과 김호현민기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이 함께하다. 통일광장 선생님들, 사회단체 지도부들을 장례위원으로 하다.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들은 장례위원으로 감은 사무차장은 총무, 이정태 운영위원은 의전위원으로 정하다. 권오현 장례위원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김영옥 범민련 중앙위원, 노진민 집행위원장, 강덕한
- ☞ 정순택 선생님 빈소에 '통일애국열사 정순택 선생 민족통일장'이라고 쓴 펼침막을 설치하고 상조(조카님들)와 김호현 집행위원장 문상객 맞다. 빈소에는 양심수후원회, 범남본, 통일광장,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에서 조화를 보내오고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양심수후원회원, 사회단체 성원들 문상이 줄을 잇다. 양심수후원회는 '통일조국의 횃불이신 정순택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큰 펼침막을 빈소밖에 설치하다.

02----

- ☞ 정순택 선생님 영결식이 있기 전 북측에서 정선생님의 시신 송환을 요구하여 정부 당국이 이를 수락, 판문점에서 북녘가족에게 보내드리기로 했다는 급보를 받고 장례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화장'과 보광사 영면지에 유골함 모시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빈소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당국에 유해를 넘겨주기로 하다.
- ★ 11시 장례위원회 주최로 '통일애국열사 정순택 선생 민족통일장 영결식'을 진행하다. 노진민 집행위원장 사회로 추도 묵념에 이어 김영승선생의 약력소개, 임방규, 권오헌 장례위원장의 조사, 임기란 민기협전 상임의장, 이규재 범남본 의장, 김 은 양심수후원회 사무차장,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의 추도사, 이기형, 양회철 선생의 조시낭독, 안산지역 문예일꾼들의 조기가 있었음. 이어 정태석 장조카님의 유족인사, 고성화 선생님의 호상인사가 있은 다음 유족과 장례위원등 참가자들의 분향 현화가 있었음. 유족인사, 고성화 선생님의 호상인사가 있은 다음유족과 장례위원등 참가자들의 분향 현화가 있었음. 이어 운구를하고 마지막 발인제를 하다. 유족 측에서 발인제 축문을 읽고 임방규, 권오헌 장례위원장이 마지막 가심에 대한 애도의 분향재배가 있었음.
-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선생의 시신이 오후 3시 판문점 통일의 관문을 통과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후 6시 37분경 북으로 송환됐다. 정부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시정전위원회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정 순택 선생의 시신과 유품을 북측 장남인 정태두(김책공업종합대 교수) 씨에게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태두씨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어머니도 바랬고 우리 자식들도 바랬으나이렇게 시체로 오시다니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 2000. 9. 2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이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와 남녘에 남이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 일동' 이름으로 정순택 선생님의 별세에 대해 조의문을 보내오다. 또한범민련 공동사무국과 해외부부에서도 조사를 보내오다.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경희대 수원배움터 중앙대 안성배움터 총학생회 등 16개 대학 학생회 소속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평택 농활공동추진위'는 팽성읍 일대에서 우리땅지키기 가을농활을 벌이면서 이날 대추초등학교에서 팽성읍 지역 주민 50여명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확장 저지를 위한 397회 촛불집회와대 동문화제를 열다.

03-

- 민기협 창립때 공동의장을 맡았고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역임하셨던 조만조 님께서 간암등으로 투병해오시다가이날새벽3시 45분 운명하셨습니다. 재일유학생 사건으로 14년 옥고를 치루었던 이 철 님의 장모님이시고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7년 옥고를 치 루었던 민향식 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조만조 님께선 100여명이 넘는 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의 석방운동을 온몸 다비쳐 헌신해오 셨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 고인의 빈소는 수유1동 성당에 마련 했고 양심수후원회에서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 ② 22년 옥고를치루시고 비전향으로 출소하여 제주에 살고계시면서 '통일의 한 길에서' 란 책을 내신 고성화 선생님께서 한겨레신문사에 들려문화부기자와 살아오신 이야기들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 양심수후원회장,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상임공동 대표 권오현 대표, 정순택 선생님 유해 송환과 비전향징기수 2차 송환과 관련 통일 뉴스와인터뷰하다.
- ☞ 개천절 4338주년을 기념해, 대종교, 천도교 등 7개 민족종단과 대한민 국광복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1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평양의 단군릉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 사직공원에서 각각개천절 기념행사를 가졌다. '개천절민족공동 행사준비위원회'는 광복 60주년 평양문화유적 5차 답사단으로 평양에 와 강동군 문흥면 대박산 기슭 단군릉 앞에서 '천제봉행의식'을 가졌으며 이는 2002, 2003년에 이어 세 번째 공동행사.
- ★에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종합시장에서 곡물판매가 중지되고 기능이 축소됐던 배급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WFP는 긴급 보고서에서 "1일자로 종합시장에서 곡물판매가 중지되고 공공배급소 (PDC)가 전국적으로 식량배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식량생산량이 늘어나고 중국과 이남으로부터 식량지원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쌀기격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 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하다.

04-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kbs라디오〈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와 정순택 선생님 유해 송환과 비전향장기수 송환관련 생빙송 인터뷰를 하다. 또한 오후에도 kbs라디오 국제방송〈뉴스 매거진〉과 같은 내용의

2005년 10월

생방송 인터뷰를 하다.

- 고 조만조 님 빈소에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함께 문상했습니다. 김영 옥 지도위원, 김호현 운영위원, 임미영, 임선영 회원, 김은 사무차장, 권호헌 회장 함께 했습니다.
- ⑥ 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칼럼을 기고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3차 소환 조사가 있었음. 강정구 교수는 옥인동 대공분실에 출두하기 앞서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정구대책위, 공동위원장 조헌정)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색깔몰이'중단과 이성적 논증으로 맥아더와 6.25에 접근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같은 시각, 보수단체의 기습적인 기자회견과 '1인시위'등 고성과 막말로 발표를 방해하였으나, 강교수가 "'경애하는 지도자품으로 가버려'하는 식의 세 살짜리 수준의 막말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논리라면 이 남한 땅에 그 많던 친일 권력자들은 모두일본으로 가이했고, 지금 기성 주류의 대부분은 친미를 넘어 맹목적인 숭미주의 자인데 이들도 모두 미국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대목을 읽는데서 참기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며 박수를 받았다.
- ☞ 다산인권센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 인권위 원회,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등 6개 인권단체들은 1004, 인권경찰비전선포식'을 진행하는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대 회장 앞에서 경찰이 표면적인 변회뿐만아니라 진정한 인권경찰로거 듭나려면 여전히 남이있는 30여 개의 보안분실을 해체시키고 시위대 들에 대한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②일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선생의 유해가평양시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에 안장됐고, 애국열사릉에서 관계부문 일꾼들과 2000년 1차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영결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언론들이 전함.

0 5 ----

- 강북구 수유 성당에서 함세웅 신부님 집전으로 조만조 님 영결 미사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하여 유골은 가까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kbs1라디오〈오늘〉과 정순택 선생님 유해송 환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과 관련 인터뷰했음. 또한 같은날 cbs〈서 울에서 평양까지〉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의 생방송 인터뷰를 했음.
-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 방문권 오현 양심수 후원회장과 비전향장기수 송환관련 인터뷰하다. 또한 민주노동당기 관지 기자도 만남의 집에 와서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하다.
- 인사동에서 정순택 선생 장례위원회와 정선생님 큰 조카분 함께하여 장례비 등 결산모임이 있었음. 버스, 장의차, 장의용품, 대여품 등. 빈 소용품, 음식, 홍보비, 기타잡비 등 지출분이 조위입금보다 300,000여 만원이 많아 정순택 선생님 큰 조카님이 채워넣었음.

☞ 국회 정보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니라당 정형근 의원이 강정구 교수의 '처리방침' 질의에 대해 허준영 경찰청장은 '구속수사 한다는의 견'이라고 답변하다.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이 인권개념에 대한초보적 안목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음.

6-----

⑤ 588회 민기협 목요집회.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권오헌 공동의장의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발언,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저지 동국대학생대책위 이동철학생의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철회 주장발언, 나동혁씨출소 인사

07-----

- 통일연대 회이실에서 5기 통일연대 10월 상임대표자회의가 열림. 아 펙반대 국민행동 평택대책위 9월 회계, 6.15공동위원회 실무협의 등 보고사항에 이어 '통일연대 하반기 사업계획안', '6.15공동위 강회를 위한 조직발전 논의제안 및 향후 논의 일정 등 논의하다.
-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부설 평화연구소 주최로 '연구소개설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다. 토론회에 앞서 리영희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하여 '미국은 조약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 라며 '북경회담이 종이조각몇 마디에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민족의 행동을 규정할 때가 아니다'라고소신을 밝히다. 리교수 강연에 이어 '한반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군축방안'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상과 평화체제 구축경로'를 주제로 한 동국대 이철기 교수와 한신대 이삼성 교수의 발제가 있었음.
- 남북적십자는 5-7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진 후 올해 두차례 이산 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되 제 1차 화상상봉은 올해 11월 24일부터 25 일까지, 제 2차 화상상봉은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 하다

08-----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천주교 안성공원 유해 봉안소에서 '우당최근우 선생 유해 봉안소 참배식이 있었음. 우당선생은 항일 민족해방 투쟁과 해방된 조국에선 자주통일운동을 해왔고 특히 4.19 혁명 뒤 혁신정당 가운데 가장 정통성을 가진 사회당 당수를 맡았고 5.16 군사쿠데타로 구속되어 옥사하신 통일애국열사였음.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장의사회로 유족인 두 따님의 첫잔 올림과함께 모두 추모 묵념. 이어 김병태범남본 통일연대 고문이며 사회당동지였던 진병호 선생의 추도사, 참배인들의 분향재배가 있었음. 참배식에는 두 따님과 사회당을 함께 했던 진병호, 김영옥, 강창덕, 김재봉선생님과 전창일, 이종린, 라창순, 박상순, 이강립, 김병태, 조용준, 김제영, 서상호,전무배, 권오현 등이 함께 했고 시노트 신부님, 미유젠시시의원 등이 함께 했음.
- ☎ 조선통신.조선신보 등 주요 '친북사이트' 차단 풀렸다. 조선통신, 조선 신보,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우리민족끼리, 조국평화통일협회, 재 미동포 전국연합회, 코리아네트워크와 통일아리랑등이 일반 접속이 가능해졌으나 아직 한통련. 총련 등은 차단중이다. 당국이 기존 사이트

■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두에 대해 차단을 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통신 등 언론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차단을 해제했거나 아니면 사이트 운영자가 IP 주소를 옮긴 후 당국이 추가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친북사이트' 차단을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보이다.

●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서울통일연대, 서울민중연대(준) 주최로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이행, 부시방한 반대, 주한미군철수서울지역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총련송효원 의장의 10.7대학생행동의 날과7일 부산에서 열린 '부시고발 대회' 보고와 결의발언, 범민련남측본부 서울연합 김규철 의장의 정치연설, 서총련 김노진 의장의 결의문 낭독, 대회에 앞서 서총련,6.15청학연대 등 청년학생 150여명은 '6자회담 공동성명이행,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을 외치며 대학로 이화사거리─종로를 거쳐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서울지역 주한미군 철수대행진'을 진행했다.

0 9-----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발기인이었고 중앙위원이 었으며 군사정권에 의해 사법 살인 당한신향식 선생 23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광주공원 묘역 고인의 묘소에서 있었음. 유족과 남민전 동지들과 사회단체 성원, 옴시롱 감시롱 회원 등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권오헌 사회로 이계영 미망인의 첫잔올림과 추도묵념, 다함께 추도의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고 이어 임규영 동지의 약력 소개, 박중기 추모연대 대표와 남민전 동지 박석률 범민련 고문의 추도사, 김남주 시인이 쓴 '전사2'를 김종삼 동지가 읽다.이어 비전향장기수로 2차 송환 희망자이신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이 마지막잔을 올리고 다같이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추도식을 마침. 남민전 동지 외사회단체 대표로는 통혁당 사건의 오병철 선생, 인혁당 사건의 김종대, 이창복, 황현승, 전창일 선생, 범남본 이종린 명예의장, 유기협 강민조 이사장과 박선영 열사어머님, 통민청 동지였던 진병호 선생, 작가 김대영 선생, 민기협 조순덕 상임의장과 오감시롱 회원들이 함께 했음.

10-----

- ★ 서대문구경찰청 앞,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등)와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쟁취 공동대책위' 주최로 '강정구 교수구속방칭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박석운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여는말에 오종렬 공동대표,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 임기란민가협 고문, 강은성 항린교회 집사,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의 규탄 발언, 한성대 김귀옥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강정구 교수 강의를 수강한학생은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역 맞은 편벽산빌딩 앞으로 이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 민주노동당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미양국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작전계획 5027'을 새로 작성했다는 '전략기획지참'의 한미정부가 서명한 공식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2002년 12월 5일 개최된 제 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준당시 국방부 장관과 도날드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전략기획지침)이고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이 무력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작계 5026'이 북한정권제거 등전면전을 위한 '작계 5027-04'와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붕괴, 내전, 대규모탈북등 급변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개념계획 5029'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다

● 평통사 등 사회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북 정권제거 대북 정밀타격 노린 작전계획 5027, 5026 즉각 폐기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 략기획지침'을 불사르는 상징의식을 가진 다음 기자회견문을 국방부 장관에 전달하다.

11-

- 광복60년 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차 평양을 방문중이던 황선(32) 통일 연대 대변인이 10일 오후10시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는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은 정부─국회─농민─시민사회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다.
- 인사동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5년 회원 역사기행 준비모임이 있었음. 모임에서는 가는 곳을 지리산 일대로 하고 11.5~6일로 하며 지역 양심수후원회와 함께하기로 하고 11.20~21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다. 김호현, 모성룡, 이득형, 노혁, 김은, 권오현함께했음.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지난5월 원안보다 대폭 '후퇴' 된 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진실규명과 화해를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조사 불기'등 과거사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다.
- अ화문 열린시민공원. 제73차 반미연대집회.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국의 대북침략계획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 럼즈펠드 미국방장관방한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다.

12 --

- ★ 168호 후원회 소식 발송작업 . 나순석 , 이봉주 , 김혜정 , 권오현 , 문상봉 선생님 함께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관지 '희망세상'기자 낙성대 '만남의집' 방문.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등 권오현 양심수후원회대표취재하다.
- 광회문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주관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있었음. 이번달 영화는 이북 신영화촬영소 (1884년 제작)에서 제작한 '철길따라 천만리'로 철도 발전에 현신해온

2005년 10월

두 남녀의 책임의식과 사랑을 그린 영화였음. 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 수후원회원등 함께 감상.

13-----

- (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국회동의 없이 국군의 해외파병 추진하는 PKO(평회유지활동)법 폐기 촉구기자 회견'을 열다.
- ❸ 문희상 열린우리당의장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당과조 선노동당의 당대당 교류, 협력을 제안한다'며 '남북집권당이 교류함 으로서 민족 내부의 신뢰를 높익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하다.

14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를 수용하면서 총장직 사퇴서를 법무부에 냈다고 밝히다. 김총장은 사표를 내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다.

15-

★ 성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5 개 단체가 주최한 열린 토론회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가열렸다. 이세영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사회로 춘천교대 김정인 사회학과 교수와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학문의 자유 보장과 언론문제, 한국전쟁에 대한 학문적 접근방법, 역사연구의 역사추상형접근방법 등에 대해 토론했다.

16

 호 사월혁명회 공동의장의 강의를 듣다. 탈근대화(Post-Mordemism)의 긍정성과 문제검에 대해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모순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며 설명하다. 바로 냉전체제 해제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한 일국체제의 패권주의와 노동과 자본운동의 유연성으로 국가간 불균형, 빈부격차의 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주통일운동과 사회진보를 위한 정론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다. 우이동에 내려와 조촐한 뒤풀이를하며 못다한 이야기들 나누고 헤어지다. 김교영, 이해옥, 신동철, 송세영, 류종인, 유인호, 정병호, 김재선, 한찬욱, 신현익, 나순석, 나민지, 나민정, 정인태, 윤진수, 신현부, 모지희, 신준철, 신디인, 이청희, 권오현학 함께하다.

- 쓸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다. 청화대는 '김총 장의 사퇴는 검찰의 권위와 신뢰,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 지 적절한 처신' 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 가 필요함을 강조하다.
-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8000여 노동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다. 이수호 위원장의 대회사 와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종로까지 행진을 하다.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 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식이 있 었고 특수고용, 사내하청, 공공부문, 일반노조, 이주노동 등 각영역을 대표하는 하반기 비정규입법 쟁취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출범식에서 는 ·정부의 기간제 법안 폐지 · 파견법 완전철폐 · 불법파견 정규직 화 · 특수고용 노종자성 인정 · 노동3권보장 · 불법하도급 근절, 원청 의 사용자 책임인정 ·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중단 · 노동허기제 쟁취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다.

17

- ★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경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희가 안기부 정치공작원 이라고 확신한다'며 김현희의 '양심고백' 과정부당국의 이북현지조사 를 실시해 '북한공작원'으로 발표된 김현희의 시숙들과 만나 김현희 의 '양심고백'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고 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 강력하게 항의하 다. 외교통상부도 별도의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총리가 과거 일본 의 군국주의와 침략만행으로 주변국들에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전 생범죄자가 합시된 〈야스쿠니〉신사를 또다시 참배한 것에 강한 유감 을 표시하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신사에 다섯 번째 참배를 했음.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지난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된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여 오는 10월 28일 전국100여개시군에 서 시군청앞,1,000만석 나락적재투쟁을 동시다발로 진행하기로 하였 고17일 현재,이미 충남논산과 당진,전남해남과 영광등 23개 시.군 에서 도청앞에 3만7천 가미를 적재중이라고 밝혔다.
- ▲ 오는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의의 공식의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시중인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방부가18일 공식 확인했다.

- 🚵 조국통일범민 족연합 남측본부가 14일자 3면에 실린 '반민전, 北노동 당 소속 대남선전기구 란 기사에서 범민련을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 속 대남전위기구 라고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18일 언론중재위원 회에 조정신청을내고 반론보도를 청구
- 🚵 고 정순택 선생님의 큰조카 정태석 님과 정순택 선생님 민족통일장 권 오헌 장례위원장은 한겨레신문사를 방문, 고인의 유언에 따라고인이 정기예금했던 400만원을 한겨레신문통일문화재단에 기증하다. 정태 석님은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작은 아버님이 기거하시던 방 을 둘러보며 고인이 애독하셨던 책들은 그대로 '만남의 집'에 잘 보관 했으면 싶다고 밝히심.
- 📾 민가현 어머님들이 서울대 가을축제에 때를 맞춰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석방기금 마련을 위해 민가협 장터를 서울대에서 열었음 (10.17~10.20까지)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이정태, 김호현, 이창 희, 주경임, 유선화, 임미영, 임선영, 김은 등이 장터가 열리는 기간동 안 방문하고 일손이 되었음.어머님들 힘내십시오.

- 🍩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광회문 동이일보사 앞에서 '동이일보이 무분별한 현대판 마녀사냥, 허위보도 언론중재위 조정신 청 기자회견'을열다. 동이일보는 지난 14일자기사에서 범민련을 '노 동당 통일선전부 소속 대남전위 기구 라고 공안당국의 말을 인용해 '구국전선계통도'라는 조직표까지 그려 사실관례를 파악하지 않은채 보도했었음. 범민련 남측본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 이유서에서 '범민련은 지난 1989년 남측의 각계인사 1049명의 제안에 의해 남북해외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단체이며 3자는 각기 동수의 대표로 의장단회의와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 만장일치제에 의한의사 결정체계를 갖고 있고 운영규약에서도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 주적 평회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 합체라고 반박하다.
-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8개 시민단체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 한 의견서'를 발표. 지난해 8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임채정(林 采正) 의원 등 여야의원 125명이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개 정안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으며 제반 남북관계 법률보다 우선 적용을 받는 상위법으로서 기본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자주.평화.민주"로 되어 있는 기본원 칙조항 역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민족대 단결'의 원칙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를 '민족대단결'로 수정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남북관계발전위원 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군비감축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 무를 확대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범남본, 평통사, 전국연합,

전농, 민주노동당, 양심수후원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제37차 한 미 연례안보회의(SOM)에 즈음한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시민 사회단체 공동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사회로이규재 범남본의장,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대표,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결의발언과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홍근 수 평통사 공동대표가공동선언문을 낭독하다.

▲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전국민중연대와 38개 단체로 구성된 '신자 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은 '민중생존권 박탈하는 WTO도하개발 의제(DDA)협상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문경식 전농 의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이 '개발도상 국가와 최빈국으로 하여금 농산물과 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 추도록 하고 있으며 초국적기업이 물, 전력, 보건의료, 교육 등 민중들 의 삶의 필수적인 서비스 영역까지 침입, 이윤을 내고 있다고 초국적기 업의 행패를 규탄하다.

- 🚳 광회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범남본,평통사,평택대 책위 등은 '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중단, 럼스펠드 방한반 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이규재 범남본 의장,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등 규탄발언과 서 총련 이대근 조통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 자회견문을 통해 · 대북 적대정책 폐기 ·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등 전쟁계획 폐기 · 무력증강, 평택기지확장, 미군재배치계획중단 ·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정책 폐기 ·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 한반 도 평화협정체결 ·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 이라크피병연장 강요말 것 ·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과 방해중지, 주한미군철수 일정 등을 밝힐것 등을 미국에 요구하다.
- 🚵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 기위해 기어들다. 오산미군기지에 도착하여 헬기로 용산미군기지를 거쳐 신라호텔에 도착하다. 이 전쟁 광신자의 가는길마다 평통사 활동 가들이 용산미군기지, 남산터널, 신라호텔 등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북한공격계획폐기', '반대 전략적 유연성', '작전통제권 반환' 등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가다.

21-----

 통일연대, 민중연대(상임대표정광훈)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활동가들 국방부앞에 모여 '한반도 전쟁계획폐기, 6자회담 공동성명이행, 주한 미군철수 촉구대회'를 열다.통일연대 권오혁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의 대회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의 규탄발 언에 이어 용산미군기자 담장에 "미군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6자회 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쓰인 노란딱지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고 마 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제37차 SCM회의가 열리는 용산 국방부 정 문앞에서 SCM회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집중농성을 선포하다.

🚳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2005년 회원역사기행 지리산, 구례, 곡성 일대

2005년 10월

답사다녀오다

23.

24

- ②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연형묵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낮 12시 10분 향년 73세를 일기로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통일 부는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연 형묵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하는 대북 전통문 을 보냈다고 밝힘.
- ☞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이 오는 11월 12 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반대하는 '이펙 반대 부시반대 10만 조직화를 위한 출정식' 을 가짐.
- 광화문 동이일보 사옥 앞에서 '동이일보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민주화 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주최로 동이일보의 사죄와 즉각 원상복직 등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최근 '수구냉전의 나팔수' 로 부상하고 있는 동 아일보에 대한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 현대 하이스코 비졍규직 지회 소속 61명의 노동자들이 순천공장에 설치된 2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점거농성에 들어가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회는 ·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 민주노조인정 · 현대하이스 코와 직접대화 등을 요구해 왔었지만 사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노 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4개 회사를 위장 폐업하고 120명을 집단해고했었음.

25

- ☞ 국가보안법폐지연대는 프레스센터 7층에서 '망국적 색깔론 규탄, 국가 보안법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가지다. 국민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 범민련 남측본부이규재 의장,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고, 홍근수 목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청문회' 및 각계 인사 및 민주 지도자 선언 등을 국가보안법제정한지 57년이 되는 오는 12월 1일에 맞춰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다.
- 지난 10일 광복 60년 평양문화유적 참관차 방북했다가평양산원서 딸을 출산한 황선 통일연대 대변인(32)이 아이와 함께 육로로 분단 경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돌아오다. 양측부모님과 친지, 덕성여대동문회, 통일연대 실천연대 회원들이 마중하다.

26.

☎ 통일운동원로를 중심으로 한 86명의 '광복 60년 기념 평양 문회유적

참관단 (단장 한상렬)이 4박 5일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향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 대표와 김지영 부회장, 김호현 운 영위원이 함께 했음, 참관단은 북측에서 보내온 고려만항 JS616기에 탑승. 1시간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북측관계자들의 마중을 받다. 공항건물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1.2.3조로 나누어 버스에 타고 평양 시내를 거쳐 양각도 호텔 도착.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만경대 김일 성 주석 생기를 답사하고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에 들러 학생들의 과외 활동모습과 공연을 관람하다. 이어 능라도에 있는 5.1경기장으로 가 다. 이북에서 '당창건 60돐' 을 맞아 재창작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다. 서장에서 제 1,2,3,4장 종장에 이르는 선군아리 랑, 행복아리랑, 통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 등으로 이어지면서 각 장마다 더욱 구체화된 제1,2,3등 경으로 짜여졌음. 120분이 걸리는 이 공연은 80.000여명이 펼치는 일시분란하고 변화무쌍한 장면이 이어져 감탄을 자아내게 하다. 외세에 맞서 고난을 뚫고 희망세상. 강성대국으 로 가는 대도약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예술작품이었음, 마치고 양각도 호텔로돌이와 북측이 준비한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직도 폭격장 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를 위한 전북대책위원회는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다.

27-----

-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임채정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처리하다
- 아펙반대국민행동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아펙회의기간 내 집회 자유 침해하는 경찰청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아펙반대국민행동은 지 난 20일 집회 및 각종 선전전을 위해 부산시내 237곳에 집회신고를 했 으나, 아펙회의 장소인 해운대와 떨어진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 대전철역 등 4곳만 허용되고 그 외 장소는 '보수단체'들이 이미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허되었고 행진이 포함된 집회신고는 모두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며 인권경찰을 표방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청을 규탄하다.
- 등국대 문화관에서 동국대 재학생, 졸업생, 교수 등 130여명이 모인가 운데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와 직위해제에 반대하는 후원의 밤 행사 가열리다.
- 평양 문화유적 참관단은 오전 대동강 구역에 있는 '주체사상탑'을 답사하다. 150m 높이의 봉화가 있는 웅장한 조선식 석탑양식의 백색천연화강석으로 세워졌음. 이어 윤이상 기념관 옆 민족식당에서 점심을먹고 김일성 광장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만경대 선착장까지 가면서 대동강가의 푸른 숲과 기념비적 건축물, 원산만에서 첩보활동 하다나포된 '프에블로호'등을 보게 되다. 다시 자동차로 쑥섬에 가서 1948. 5. 2일 김일성 주석이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마치고지도부를 초청 오찬회를 마련했던 쑥섬 혁명사적지를 답사하다. 이어고려호텔에 잠시 들렸다가 평안북도 향산군에 위치한 묘향산으로 떠나 묘향산호텔에 도착, 하루 답사를 모두 마침

■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5년 10월

28-----

- 전농과 '쌀협상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인근 농성장에서 '쌀협상국회비준저지 농민대투쟁 선포 기자회견기자회견'을 열고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위원장임 채정)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데 반발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문경식) 등 농민단체들이일 농민대투쟁 돌입을 선포하다.
- ⑤ '동의대 사건' 관련자에 '민주화운동관련성'을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 결정에 반발해 '순직 경찰관'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2002헌마425)에 대해,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가 각하함으로써 '민주화운동관련성이 있다'고 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2002년 4월 27일 결정은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다.
- 평양참관단은 묘향산호텔을 떠나 1972년에 완공된 묘향산 국제친선 전람관을 관람하다. 2004년 말까지 178개니라에서 국가원수 정부수반 그외 유명인사가 김일성 주석에게 보내온 선물 219,370여점이 특수보 존이된 마치 지하도시를 연상케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람관이었음. 이 와는 별도로 1992년에 개관된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보내온 선물 2004년 말 현재 53,419점이 전시되고 있었음. 관람을 마치고 향산호텔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오후엔 보현사 답사를 하며 해설원의 설명을 듣다. 이어 다시 차에 올라 만폭동 입구에 까지 가서,약 1㎞에 이르는 절경을 이르는 만폭동 등반 답사를 하다. 울창한 소나무 만가지 폭포가 있다는 이 만폭동은 왕복 10㎞에 이르는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참관단은 서곡폭포 − 무릉폭포 − 장수바위 − 유선폭포 − 팔달 − 만목대 − 유선다리 − 비선대 − 비선폭포까지 황홀경의 만폭동을 답사하다.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묘향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내다.
- 한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의 크레인 점거농성과 관련 구사 대와 경찰이 강제진압하려하자 전국 금속산업노조는 500여명의 노조 원이 함께한 가운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 동자결의대회'를 순천공장에서 열고 현대자본이 농성 노동자들과 대 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다. 이어 시내를 돌며 선전전을 벌이다. 또한 민 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김미희 최고위원, 이준상 전남도 당위원장 등 도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노동자를 자극하는 진압 등 일체의 행동을 중 단할 것을 촉구하다.
-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으로 평양 순인비행장에 도착, 김정일 위원장의 마중을 받았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후진타오 주석은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연도를 달려 김일성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궁전을 참배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열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원칙을확인했다고 하다.

9-----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주최로 평택역 광장에서 주민, 시민단체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결의대회'를 가지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평택역 광장 왼쪽 편 평택파출소 10m 전방에 천막을 치고 평택범대위 문정현, 김용한, 김지태 상임

공동대표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다.

●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은 평안북도 구장군에 있는 룡문 대굴을 답시하다. 석회암층이 오랜시간 용해침식 작용을 받아 생겨난 지하카르스트 (karst)로 천변만화로 생겨난 신비스러운 동굴이었음. 풍년동, 석회동, 백화동, 금강궁, 백두밀영동, 천상학원동, 룡문광장, 만물동 등으로 이루어진 길이 4.5km였음. 굴에 들어갈수록 산악, 계곡, 폭포, 지하광장, 돌고드름, 돌순, 소, 말, 코끼리 등 짐승상, 독수리, 비둘기, 앵무새 등 날짐승, 여러 가지 물고기 형상. 아름답게 피어난 각종 꽃, 말그대로 지하박물관이었음. 다시 향산호텔로 돌아와 식사하고 오후 2시 평양으로 떠나다. 양각호텔에 돌아와 남측에서 마련한 답례만찬이 있었음.

30--

-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으로 참석한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00년 9.2일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께 서울에서 준비해간 선물(시계63개) 을 북측 관계자를 통해 전달해드리다.
- 참관단은 양각호텔에서 짐을 모두 챙겨가지고 버스에 오르다. 북측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물이라며 참관단 모두에게 술 3병씩을 전해주다. 이어 참관단은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에 있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을 답사하다. 220여 핵타르 넓이의 왕릉지역은 왕릉구역, 신하구역, 정릉새定陵寺)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음. 현재 동명왕릉과 정릉사는 동명왕 탄생 2291년이되는 1993년 5월에 개건(재건)되었다고함. 관람을 마친 참관단은 다시 평양 통일거리에 있는 '평양단고기'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어 만수대 창작사와 금강산 선물센터에 들러선물과 기념품 등을 사고 곧바로 순만비행장으로 가다. 5시 고려민항 JS645에 탑승,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 김은 차장과김호, 고광희회원이 마중나왔고 낙성대 만남의 집 김영식 선생님 등 통일광장선생님과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이 마중나왔음.

31-----

-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천공장에서 크레인 고공농성을 한지 한주일이 되고 있는 동안전기와 음식, 물마저 차단 당해 추위와 굶주림,침탈위협의 극한 상황속에서 농성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평택 대추초등학교에서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국 방부의 조처를 규탄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미사가 문규현 신부 주례로 열리다. 서울, 의정부, 수원, 광주, 안동, 전주, 부산등 전국에서 온 사제들과 주민 등 100여명은 '평화와 생명의 하느님에게 한반도 평화와 평택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올리다.
- ☎ 양심수들에게 민족21,영치금 발송하다.